

의안번호	제126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1월 일 (제337회)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5년 1월 27일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126
----------	-----

제안연월일 : 2015. 1. 27.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 주 문

-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서대전역을 우회하여 운행한다면 오송역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충북권은 물론, 천안·아산역 분기에서 오송역으로 양보했던 호남권에도 엄청난 좌절과 분노만 살 뿐임.
- 고속철도 KTX는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초고속 열차로 서대전역을 경유해 호남권으로 향하게 되면 45분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시간적, 효율적 측면에서 초고속 열차가 아닌 일반열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저속철이 될 것이 분명함.
-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부터 시작해 8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사업으로 저속철이 아닌 초고속철로망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제안이유

- 우리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제출하고자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2005년 호남고속철도 계획 수립 시 호남권은 천안·아산역 분기를 위해 고속철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고 했으나 정부의 오송역 분기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서대전역을 우회하여 운행한다면 오송역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충북권은 물론, 천안·아산역 분기에서 오송역으로 양보했던 호남권에도 엄청난 좌절과 분노만 살 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북의 오송, 그리고 오송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발전의 호재와 함께 수도권-충북권-호남권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묶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입니다.

고속철도 KTX는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초고속 열차로서 대전역을 경유해 호남권으로 향하게 되면 45분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시간적, 효율적 측면에서 초고속 열차가 아닌 일반열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저속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부터 시작해 8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사업으로 저속철이 아닌 초고속철로망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5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